

# 문재인 “再造山河” 안철수 “磨斧爲針”

〈재조산하〉

〈마부위침〉

## 대권주자들 사자성어 새해 메시지

### 손학규 7곳 건설 ‘국태민안’ 이재명 건국 혁명 ‘사불범정’ 박원순 ‘혁고정신’ 안희정 ‘민주주의’ 김부겸 ‘노적성해’

아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핵심 화두를 사자성어로 제시하며 메시지 경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해 사자성어로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내세웠다. 문 전 대표 측은 1일 “임진왜란 때 실의에 빠져있던 서해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적어 준 글귀”라며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충신들의 마음으로, 절박하게 대한

민국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을 내걸었다. 안 전 대표 측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하고자 한다는 뜻”이라며 “마부위침의 자세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제2공화국 건설과 정치권 새판짜기를 지상과제로 제시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새해 키워드로 꼽았다. 손 전 대표 측은 “내년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하게 지는 한해가 되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혁고정신’(革故鼎新)을 선정했다. 옛것을 뜯어고치고 술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박 시장 측은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사불범정’(邪不犯正)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6년에는 국민이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무리를 탄핵했고, 2017년에는 위대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건국 명예혁명을 성공시킬 것”이

라며 “공평한 민주공화국이 우리가 꿈꾸는 새해의 나라”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새해 사자성어로 내놨다. 안 지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서에서 “지난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선언했다. 시대교체를 위한 원리는 민주주의뿐”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露積成海)를 꼽았다. “작은 촛불이 모여 큰 민주주의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떠오른 사자성어”라며 “개인적으로는 뚜벅뚜벅 걸어서 더욱 큰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가 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새해 벽두부터...대권 주자들 분주

새해를 맞아 아권의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를 펼칠 준비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광주의 상징 무등산국립공원에 올라 해맞이를 했다. 문 전 대표는 등반에 앞서 문빈정사를 찾아 법선 스님과 만나 새해 인사를 하며 “새해에는 정권교체로 새시대·새 희망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는 15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직후 대선 캠프를 꾸리며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낸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대표가 꾸준히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왔다”면서 “캠프 형태를 일찌감치 갖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전대 직후를 사실상 캠프를 구성할 시점으로 보고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연초부터 분

격적인 독자세력화에 시동을 걸며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손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하순쯤 ‘국민주권 개혁회의’ 발대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월 31일 광화문광장 축적연설과 TBS 출연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에 대해 “박근혜의 몸통 새누리당 일부가 세로 분열해 ‘신상품’ 코스를 펼칠 수 있다. 상당 부분 세력에 성공했다”며 “지금은 위험한 상황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새해를 맞아 낡은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행사에서 각계 시민 대표와 타종하고 “보신각 종이 울렸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종소리다. 천만 촛불 시민의 염원이 담긴 종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 대통령 의혹 거듭 반박

### 세월호 7시간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한 자리에서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서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위가 정지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난 것은 23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저는 그날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밀회설’을 비롯한 각종 소문이 돌아다니는 데 대해 “시간이 지나니 ‘굿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됐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성형술 의혹도 떠올랐다”며 안타까워했다. /연합뉴스



23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위가 정지된 뒤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23일 만이다. /연합뉴스

## 탄핵심판 신속 진행...박한철 “국민 납득할 수 있게 공정·신속”

### 내일 첫 변론

2017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현재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또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다.

앞서 현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도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에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진주·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목인이 있었는지 등을 개물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본 심리를 시작한 지 단 열흘 만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 대부분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한다.

박 소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절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인명진 “친박 핵심 6일까지 당 떠나라”

### “주요 직책 특권 누린 인사”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사태와 4·13 총선 참패 등 당 위기와 관련해 친박계 핵심 책임론을 제기하며 1주일 내 자진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호가 호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인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못난 행태를 보인 사람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라며 “본인들이 판단해 1월 6일까지 자진 탈당하라”고 말했다.

인적 청산에 실패할 경우 1월8일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 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3대 인적 청산’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주요 직책이나 당에서 대표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재직하며 특권을 누렸던 인사 ▲

총선에서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당의 분열을 조장했던 인사 ▲호가호위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보였던 인사를 꼽았다.

현 정부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당내 현역은 이경현 의원이 유일하다. 서청원 의원과 조원진·이장우 의원 등은 총선을 전후한 시기 최고위원이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며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막판 파문 당사자였다.

이 밖에 정종섭(행정자치), 윤상직(산업통상자원), 이주영·유기준(해양수산) 전 장관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정관급),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광산도(민정)·유민봉(국정기획) 전 수석비서관 등이 정부 고위직을 지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인적 청산이 인 위원장 구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B 새누리 탈당 결정 “더 일찍 나가고 싶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찍(탈당)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탈당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 창당)이 지난 다음 연초에 탈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오는 24일 창당을 목표로 세(勢) 물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행보가 탈당을 보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謹賀新年  
www.kps.co.kr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정부 3.0

# 2017년 희망 대한민국!

2017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활기차고,  
국민이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한전KPS!

KPS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 설비(원자력, 화력, 수력) 정비 · 송변전 설비 정비 · 민간산업 설비 정비 · 특화기술서비스 · 해외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 신재생에너지